

【이케다 동물원을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전일 이케다 동물원의 간부가 시청을 방문해 동물원의 시영화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케다 동물원은 일본 천황의 누나인 이케다 아츠코씨가 원장을 맡고있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민영 동물원으로 1953년 이케다 산업동물원 개원 이래 60년 이상에 걸쳐 시민의 휴식처로 또, 생명의 귀중함을 배우는 정서 교육의 장소로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런 역사있는 동물원입니다만, 최근에는 관람객수가 절정일때에 비해 60%이하로 하락해 누적 적자도 약 2억 4,900 만엔 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의 요청은 동물원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시영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지만, 저로서는 이하의 점에 대해 현 단계에서의 답변을 전했습니다.

(1) 시영화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 적자 보전을 하는 것에 그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는가.

(과거의 적자 보전의 취지는 아니라는 답이 있었음)

(2) 시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없다. 어떤 동물원을 만들어 갈 것있가에 대해서 경제계와 전문가를 의견을 들으면서 동물원이 주체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그때 시에 대한 참가 요청이 있다면 흔쾌히 참여할것이다.

지금까지 이케다 동물원이 시민의 정서 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동물원의 미래상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후 동물원이 주체가 되어 검토하는 가운데 시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대응을 결정해 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